

“공공건설사업 선금 지급 실태조사를”

국민의당 국토위·정동영 의원, “‘재벌 건설사 하도급법 위반 여부 조사 요구서’ 제출 예정”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의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건설사업의 선금 지급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노임지급과 자재확보에 사용되지 않은 선금 지급 중단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지난 10월 31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매년 조기 지급한 선금 70% 중 하청기업의 몫은 11%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원청기업이 차지한다'며 '정부의 선금 지급 실태를 개선해야 한다' 주장한 바 있다.

이는 건설노동자 임금 지급과 자재대금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선금이 하청업체와 노동자에 돌아가지 않고, 대기업 재벌 건설사와 원청업체들의 배를 불리는 데 사용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동기자회견에 참석한 주승용 의원은 "익산구도관리청과 부산국도관리청이 발주한 56개 사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작년과 금년 예산액 2조 1,040억 중에서 1조 840억원, 전체 예산의 52%를 대기업 재벌건설사인 원청기업에 선금 지불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또 "국도관리청 산하 4개 현장만을 대상으로 선금지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원청업자는 선금을 수령할 때 제출한 사용계획서에 총 350억원을 하청업체에 지급하겠다고 명시했지만, 원청업자가 중소하청기업에 실제로 지급한 돈은 92억 원으로 나머지 780억원은 원청업자가 챙겼다"고 지적했다.

최경환 의원은 "원청업체들이 하청업체에 선금을 제때 주지 않으면 하청업체 소속 건설노동자들은 땀 흘려 일한 대가를 제때 받지 못한다" 지적하고 "이렇게 임금



‘건배’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현지시간) 자카르타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건배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 오른쪽은 박용만 대한상의회장.

체불 당한 건설노동자가 지난 5년간 32만 명으로 약 1조 2,000억원의 임금을 체불당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정부는 선금 지급 때 한국은행에서 일시차입금으로 돈을 빌려 지급하기에 이자비용을 지불한다"며 "정부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납부한 이자가 무려 8,172억원"이라고 지적했다.

정동영 의원은 "국민들의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 차원에서

국예산의 기반적 집행과 재정의 방만한 사용을 상징하는 공공건설사업의 선금 지급 실태와 건설노동자와 중장비 자재대금 상습 체불 실태를 조사하여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국토교통부는 현장 건설노동자와 중소 하청기업에 선금이 골고루 배분되도록 선금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김현미 장관이 국정감사 첫날 밝힌 '건설현장 발주처 임금직불제 전면 확대

추진 계획을 조속히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공공건설공사 관련 선금 지급 실태조사, 대기업 재벌 건설사들의 하도급법 위반 여부 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해 관계 법령을 위반한 건설사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성 기자

최영규 “일제잔재 조회대 철거해야”

전북도의회 최영규(익산4) 의원은 9일 제348회 정례회 전북도교육청 정책질문에서 “도내 각급학교 운동장에 조회대가 설치돼 있는데, 이는 일제 잔재”라면서 시설 철거와 함께 조회대 활용방안 모색을 촉구했다.



최영규 의원

그는 “학교의 장이 높은 곳에서 운동장에서 있는 학생들을 내려다보면서 훈시하는 운동장 조회는 한때 학교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회에 앞서 교장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앞으로 나란히, 좌우로 나란히’ 같은 구호를 외치는 교사와 외와 열을 맞추는 학생들은 이를 당연하게 여겼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운동장 조회는 거의 사라져 조회대 즉 구형대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으나, 예산부족 등으로 철거를 못하는 상황이다.

최영규 의원은 “최근 조회대는 각 학교에서 운동장 조회가 사라지면서 체육대회 등 1년에 고작 1~2차례 사용돼 활용도가 낮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높이가 1~4m에 달해 낙상 등 학생 안전 사고가 우려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최영규 의원은 “조회대가 없다고 학교 운영에 특별한 불편이나 문제점은 없다고 들었다”면서 “조회대 철거 사업 등 정비 사업비 예산을 편성해 일제 잔재를 깨끗이 청산하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김규태 부교육감은 “도교육청에서 일제 잔재 청산인 조회대, 구형대를 없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진성 기자

민주당, “2022년까지 소방인력 단계적 총원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제 55주년 소방의 날인 9일 “국민생명 안전에 관심 기조로 2022년까지 부족한 소방인력을 단계적으로 총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소방관의 고질적 인력 부족으로 업무 과중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 10년동안 순직한 소방관은 51명, 현장에서 부상당한 소방관은 무려 3,000명이 넘는다. 부상자 10명 중 8명은 자비로 치료받고, 소방관을 지켜줄 장비 또한 노후화돼고 매우 부족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방인력은 법적기준 대비 1만9,000명이 부족하고, 소방관 현행이 책임져야 하는 국민이 1,500만”이라며 “소방관의 처우개선이 하루속히 이뤄야 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2022년까지 부족한 소방인력을 단계적으로 총원하고, 소방관 처우 개선 위한 국가직 전환, 복합치유센터 설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8년도 예산이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소방관, 국민 모두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아당의 대응적 협조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 원내대표는 “이번 트럼프 방한으로 북핵문제 평화 해결 원천 다시 한번 확인했고, 근거없는 코리아페싱 논란이 불필요한 문제제기였다”는 점도 증명됐다”고 평가했다.

또 문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에 대해서는 “한반도 위기 해소와 긴장완화에 미중을 되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뉴시스

국회, 유남석 청문보고서 채택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9일 채택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인사청문회에 이어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유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적격, 부적격 의견 병기로 채택하기로 의결했다.

법사위는 적격 의견으로 유 후보자에 대해 “재판, 사법행정 경험이 풍부하고 헌법재판관으로서 헌법연구관, 수석부장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함으로써 깊이 있는 식견과 경험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부적격 의견으로는 유 후보자의 우리법 연구회 경력을 문제 삼아 “창립 회원 출신인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는 것은 법조 관련 주요 요직이 편향된 성향을 가진 연구회 출신들로 편중되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軍땃글공작’ 김관진·임관빈 오늘 구속영장 심사

김관진 “본연의 임무” 혐의부인... 임관빈, 뇌물 혐의도

군(軍) 사이버사령부 땃글 공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 구속 여부를 가를 영장심사가 10일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10일 오전 10시30분 김 전 장관의 정치관여 등 혐의 영장심사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김 전 장관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국방장관으로 재임하면서 연재욱 전 군 사이버사령부 사령관 등에게 지시해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내용의 사이버 정치 관여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12년 7월 땃글 공작에 투입할 군무원을 친정부 성향 기준으로 선발토록 신원 조사 기준을 상향 실시하고, 면접에서 호남 출신을 배제토록 조치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 7일 피의자 신분 검찰 출석 과정에서 “북한의 기반적인 대남 선전·선동에 대비해서 만든 것이 군군 사이버사령부 사이버 심리전단이다”라며 “그들은 본연의 임무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 진술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관빈(64) 전 국방부 정책실장의 정치관여 혐의도 구속 여부 판단을 받는다.

임 전 실장은 군 사이버사령부를 지휘하면서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 2012년 정치 관여 활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연 전 사령관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전 장관 등이 구속되면 검찰 수사는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시 및 보고를 받은 정황이 드러날 경우 이 전 대통령 조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저녁이나 11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2017 World Calligraphy Biennale of Jeollabuk-do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예향 전주에서
세계서예인의 축제가 열립니다.

서예의 아름다움을 세계인이 함께 나누는 문자예술의 축제
2017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가
맛과 소리와 서예의 고향 전북에서 열립니다.

2017. 10. 21[±] - 11. 19^日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전북예술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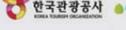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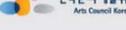
제11회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2017 World Calligraphy Biennale of Jeollabuk-do

순수와 융합
2017. 10. 21[±] - 11. 19^日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전북예술회관

■ 행사안내		
서예는 행운을 싣고 - 매주 일요일 16시 추첨	로비	
명사서예전		
생활서예전		갤러리 S
세계한국문화원 서예 수장생전		
서론서예전		
작가와외의 만남 -10.28(토) 호암 윤종용 / 11.11(토) 현봉 최수일		갤러리 O
탁본체험		
나도 서예가		갤러리 R (로비)
서예, 책을 만나다전		
서론서예전		
전, 서각의 어울림전		갤러리 R
경필서예전		
양생서예전		갤러리 I
전북우수활동작가서예전		
등불서예전		아외전시
JS호텔 학술대회 -10월 22일		세미나홀
전북 예술회관 2015기념공모전 대상작가 초대전		
기념공모 초대작가전		
2017기념공모전		
국립 전주박물관 석전 황옥전		
선인들이 즐겨 쓴 중국 글씨 본		
김암서예관 김암 송성용전		

주최  전라북도

주관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ILJIN 일진그룹